

데스크시각

박진현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TV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때문에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자졸의 오케스트라가 최고 실력의 마에스트로의 지도로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드라마의 줄거리가 '사위어거틴' 클래식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 놓은 것이다.

'비엔날레 바이러스'는 없는가

클래식 열풍을 일으키며 전방위로 확산중이다. 이 드라마의 컴패레이션 음반 '베토벤 바이러스-더 클래식 Vol.1'은 발매 2개월 만에 클래식 음반으로 '밀리언셀러'인 3만5천여 장이나 팔려나갔다.

클래식 열풍 이끈 '베바'

평범한 사람들이 시민체임버양상들의 문을 두드리게 된 데에는 MBC 수목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이하 '베바')의 영향이 크다.

도시순회에 나서자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는 관객들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이 같은 '베바 열풍'은 새삼 2008 광주 비엔날레(9월5~11월9일)를 되돌아 보게 한다. 드라마 '베바'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됐지만 이렇다 할 화두 하나 없이 '조용히'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엔날레 기간 동안 국내외 미술전문가들과 관람객이 줄을 잇지만 메인 전시장소의 중외공원벨트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술의 거리의 갤러리에 관람객들이 넘쳐나고 서점가에 미술 관련 서적이 불타나는 '비엔날레 특수'는 그저 회상사항일 뿐이다.

비단 비엔날레의 열기(熱氣)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올해로 7회째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에 걸맞은 미술 인프라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불구하고 연례에 걸맞은 미술 인프라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지금쯤이면 미술의 도시답게 국제적 수준의 미술관 하나는 이미 들어서야 맞고 한국을 상징하는 국제아트페어가 매년 열려야 한다.

미술 인프라 등 '실리' 행길 때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미래를 접미한 청년작가들이 유명작가가 되려면 '미술의 도시 서울'로 창작의 터전을 옮겨야 하고 시립미술관은 찾는 관람객이 적어 늘 썰렁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가치는 매달릴 수만은 없다. 부산영화제를 통해 부동의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산과 오페라축제 하나로 공연계의 부산과 자리 잡은 대구의 성과는 이제 광주비엔날레도 '실리(實利)'를 챙겨야 할 때임을 상기시켜준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시설

정부·여당, 임기응변식 '지방정책' 안 된다

한나라당이 그제 개최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는 3대13의 일방적 구도였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옹호한 반면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크지 않다'거나 '수도권 개활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방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국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뚜렷이 분열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시·도의회, 경제계, 사회단체 등이 총궐기하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크지 않다'거나 '수도권 개활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방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비수도권의 위기의식은 심각하다. 광주·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를 유예하거나 철회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정부는 '선(先) 지역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원칙 대신 설익은 선심성 대책으로는 지방의 반발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

'관광 흥물' 지산유원지 활성화 방안 없다

광주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였던 지산 유원지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흥물이 전락했다. 썩어가는 저수지, 멈춰선 캐노피, 오물이 넘쳐나는 화장실, 쓰레기 투성이 전망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가 등 '문화수도' 광주의 명소라고 할 수 없는 상태다.

광주·전남의 방문의 해인 올해 광주·전남에 온 외국인들이 늘기도 했다. 지산유원지 정삼읍의 팔각정에 오른 외국인들이 오물 범벅인 화장실에 걸림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은 지산유원지는 1970~80년대 광주시민들이 즐겨 찾던 종합관광지였다. 많은 시민들이 호텔과 리프트 카, 놀이공원, 수영장, 온천, 전망대 등을 고루 갖춘 이곳에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지산유원지가 이처럼 황폐된 것은 개발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광주시와 동구청 등 관할 당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행정기관이 사유지인 이곳을 개발·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민의 발걸음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다. 상당수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 광주·전남의 방문의 해인 올해 광주·전남에 온 외국인들이 늘기도 했다.

지산유원지 정삼읍의 팔각정에 오른 외국인들이 오물 범벅인 화장실에 걸림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지산유원지가 이처럼 황폐된 것은 개발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

無等鼓

미국 제 44대 대통령 선거가 벉락 오바마 당선인에게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영광을 안긴 채 마감됐다. 하지만 오바마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는 역사자료전시관 하나 없기 때문에 광주비엔날레를 상징하는 문화지구 만들기들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광주·전남의 방문의 해인 올해 광주·전남에 온 외국인들이 늘기도 했다. 지산유원지 정삼읍의 팔각정에 오른 외국인들이 오물 범벅인 화장실에 걸림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오바마노믹스



'오바마노믹스'의 3대 키워드는 경제회생, 미국 산업보호, 친환경으로 요약된다. 당선 확정 후 오바마가 가장 먼저 낸 시킴 로시 하원의장과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이틀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제시할 만큼 그에게 경제위기 극복은 절박하다.

오바마노믹스의 경제 살리기는 미국 산업 보호와 병행될 전망이다. 대선 기간에 오바마는 수차례 '공정무역'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국외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들이 결국 미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민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짐은 루스벨트'를 꿈꾸는 오바마가 내놓은 21세기형 뉴딜정책은 도로건설 등 전통 기반시설 투자에 더해 첨단산업과 친환경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오바마 공약 중 환경정책도 눈에 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80%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중동에 의존하는 에너지구조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10년 안에 벗어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노믹스는 향후 몇 년간 세계 경제질서를 이끌 키워드다.

기고

김한규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됐지만 국가균형발전법을 비롯한 미래형 도시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한 용봉지구 등 용봉동 주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어 북구발전 측면에서 안타깝게 그저 없다.

'중외공원 문화벨트' 조성 서둘러야

문화수도로 가는 길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문화전당권과 남구 사직공원일대의 아시아문화교류권, 광산구 비아일대의 아시아 신과학관, 남구 대촌일대의 아시아전승문화관, 무등산·광주호일대의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서구 마북동일대의 교육문화권, 그리고 북구 중외공원일대의 시각미디어문화관 등 광주를 7개 문화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광주비엔날레 수상 작품과 더불어 1995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는 광주비엔날레 역사와 문화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자료전시관 하나 없기 때문에 광주비엔날레를 상징하는 문화지구 만들기들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숙박·음식업소 바가지 횡포 언제쯤 사라질까

며칠 전 단풍 구경을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다가 갑자기 남편 회사에 일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그러자 펜션에서는 이를 숙박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2만원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도한 것같아 소비자 피해 상담 기관에 물어봤더니 사용 예정 일 5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게 아닌가.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심상돈



우리 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흔히들 논리적·분석적·이성적이었던 좌뇌형 인간이고, 반면 감성과 직관이 발달한 예술가적 기질을 가졌다면 우뇌형 인간이라고 말한다.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다면 앞쪽 뇌의 활동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조급해져거나 갑자기 '욕'할 때가 잦은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느냐, 오른쪽 뇌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히 잘못 알려진 통념일까?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쪽 뇌

이라는 부위가 있다. 대뇌피질은 대뇌의 가장 바깥층으로 수많은 줄무늬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동물들의 뇌와 다른 점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앞쪽 뇌의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술'이다. 술을 만성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유독 앞쪽 뇌가 험렁해서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를 연말연시에 폭탄주를 연거푸 마시는 건 뇌를 손상시켜 험렁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우편물 절도 속출...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

얼마전 퇴근길에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입주 주민으로는 보이지 않는 행색이 남부럽고 나이 든 남자 한명이 1층 우편물함에서 편지를 꺼내고 있었다.

내버린 채 달아났다. 관리실에 확인해봤더니 직원이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 폐휴지를 모아서 파는 노인네들이 아파트를 돌며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대답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newspaper info: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발행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대표전화: 2200-551, 222-8111